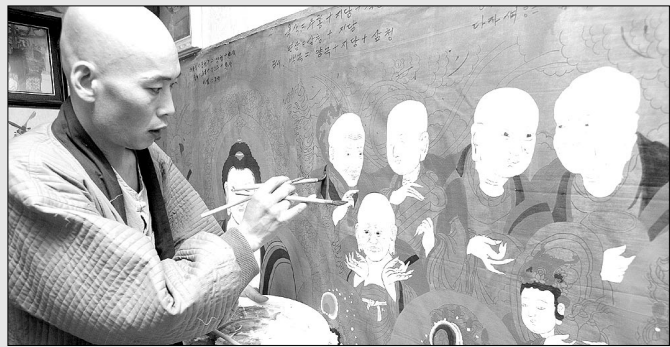


# 뻗었다! 손오공, 모두 모여라

## 마술공연으로 포교하는 용인 영통사 해관 스님



해관 스님은 땀과 숨이 뿜어지는 마술 공연을 펼친다. 수행 방편으로 땀과 숨을 흘리는 해관 스님.

손오공 스님. 경기도 용인 영통사 해관 스님의 애칭이다. 머리털 하나를 뽑아 주문을 외면 뭉치기 될 수 있는 손오공처럼 다재다능한 재능을 지녔기 때문이다. 탕화, 차력, 우수, 복싱, 스킨스쿠버, 승마, 집수, 심폐소생술, 패러글라이딩, 중장비 운전 등 스님은 못하는 게 없다. 뭉치기 만능인 스님이지만 뭉치기 해도 스님의 주특기는 마술쇼. 적어도 경기도 지역 복지시설에는 스님의 방문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인다. 10년 간 매주 일산 박애원, 용인 영보자애원, 용인 용정초등학교, 용인정보통신고교 등 복지시설과 학교를 돌며 마술 공연을 해왔기 때문이다.

스님의 인기가 이렇게 높다보니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은 팬클럽도 있다.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팬클럽

연령층도 다양하다. "교회를 다니던 청소년들까지도 영통사를 방문해 스님에게 법문을 청한다"니 팬들의 극성(기)을 짐작

### 10년째 고아원 등 돌며 무료 마술공연 해마다 동네 어르신 모시고 효도 관광

할 만 하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는 팬레터 답장과 마술 우수 복싱 승마 스킨스쿠버 등을 가르쳐 달라고 찾아오는 학생들을 일일이 상대하다 보면 짜증도 낼 법 하지만 스님은 언제나 싱글벙글이다. "시대가 변하면 포교방법도 달라져야죠.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들의 가려운 곳은 긁어 주고 아픈 데는

어부만저 주는 것이 이 시대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8년 전의 일이다. 용인시 이동면 저수지를 산책하던 스님은 7명의 불량배들과 마주쳤다. "가진 돈 다 내놔"라는 불량배들의 협박에 스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은채 "부처님 제자 되면 안 잡아먹지~"하고 엉뚱한 답을 하자 "지금 이 땅중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며 흥기로 위협했다. 우수 5단에 차력과 복싱 중앙권투의 자리까지 올랐던 스님이 동네 불량배들의 위협에 눈이나 깜짝할까? 결국 그들은 '꼬리'를 낮추고 스님의 열렬한 '제

자'가 되어 포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그 중 한명이었던 이완재(29)씨는 중장비 운전과 심폐소생술, 스킨스쿠버 등을 스님에게 배워 감사로 맹활약을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영통사 신도들과 동네 어르신 1백여 명을 모시고 서해안 안면도도 여름휴가를 떠난다. 안면도에서도 스님의 포교원력은 계속된다.



불속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불쇼' 마술을 선보이고 있는 해관 스님.

재력있는 신도들이 스님에게 보시한 한 달 6필과 15인승 쾌속정도로 안면도 휴가객들에게 무료시승을 시켜주기 때문이다. "우리 해관 스님은 돈 같은 것은 모르는구만요. 동네 농사일 돕는데는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

유. 참말로 우리 동네 보배구만요 보배."라며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 이장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오늘도 '손오공 스님' 해관 스님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불제가 되는 그날을 위해 마술 여의봉을 돌린다. 용인=노병철 기자

### 회암사, 주지 후보로 종삼 스님 선출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회암사 신임 주지 후보에 종삼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회암사는 5월 6일 주지선거인단 135명 중 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중총회를 열고 종삼 스님을 만장일치로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종삼 스님은 1975년 회암사에서 도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회암사 교무국장 겸 총무원 재정국장을 지냈으며, 제12대에 이어 제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 여수 향일암 주지를 맡고 있다.

### 대구 동화사 대웅전 상량식

대구 팔공산 동화사는 5월 5일 오전 11시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동화사 주지 지성, 대구불교방송 사장 박조 스님, 도원수 김창호 대목수 등 300여명이 동참한 상량식은 상량문 낭독, 반야심경봉독, 상량필기, 상량문 봉안 순으로 진행됐다. 상량문에 올려질 상량문 안에는 대웅전 해체복원 공사의 취지와 과정, 동화사의 현황 등이 담긴 상량문 외에 이 시대에 동화사가 쓰면 물건과 인쇄물 또 요즘 통용되는 화폐를 종류별로 함께 봉안했다. 동화사 대웅전은 올 9월 완공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 은혜사 성보박물관 문 열어

조계종 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주지 법타) 성보박물관이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후 3시 30분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연다. 은혜사 성보박물관은 1996년부터 총공사비 27억여 원이 투입됐다. 전면 9칸, 측면 5칸의 전통목조건물인 140여 평의 전시실이 있다. 35평 규모의 학예관실은 신축 준비 중이다. 앞으로 은혜사 성보박물관은 보물 제1270호 은혜사 괘불탱화, 도유형문화재 금구, 후불탱화, 삼장탱화 및 비롯한 은혜사 본·말사 문화재 및 성보 총 205건(540점)을 교환 전시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 구미불교청년회관 개관식

구미불교청년회(회장 이병정)는 구미시 선기동에 50여 평 규모의 구미불교청년회관을 마련, 5월 5일 개관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구미불교청년회 관 개관식은 구미시암연합회장 정

우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대불청 중앙회 정상욱 직전회장, 류춘일 경북지부장 등이 동참했으며 남화사 주지 성화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 태화 봉안기도 가졌다. 1994년 구미불교청년지부에서 구미지회로 축소된 이후 한동안 침체기에 있던 구미불교청년회가 재도약을 다짐하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미불교청년회관은 청년 불자 양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및 법회 등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6월부터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으로 서예, 문인화, 다도, 생활한자, 종이접기 등의 강좌가 준비돼 있고, 웰빙시대 생활건강을 위한 강좌와 시민선방도 운영할 예정이다. 불로사 청년회, 금강사 청년회, 코오롱 불교청년회, LG 정각회 등 4개의 청년지회 6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구미불교청년회회는 매월 1회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배지선 기자

### 고양경찰서불자회 창립



대한민국경찰불교회에 113번째 경찰불자모임이 결성됐다. 경기도 고양경찰서 불자회가 주인공. 고양경찰서 불자회는 4월 30일 고양 흥국사 설립전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갔다(사진). 초대 회장에 김찬원 화정지구 대장(경감)을 선출했다. 고양경찰서 경승실장 대오 스님(흥국사 주지)은 "적은 인원으로 불교회 창립이라는 원력을 세우고 정진해왔던 창립과정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불심을 키우는 경찰불자회로 키우기 위해서는 더 힘쓰고 고된 역경이 남아 있다"며 직장에서 보다 인정받는 경찰불자들의 모임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박병영 기자

### 무심정사 청주로 이전

충북 청원군 무심정사주지 도안가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포교당을 마련해 4월 30일 이전 개원 및 집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해동종 총무원장 해원, 태고종 북지원장 원봉 스님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도안 스님은 "일요법회 등 정기법회 외에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 도심포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병영 기자

## 대구, 봉축 어린이 축제 한마당

### 범어사, 부처님그림그리기 '우뚝 으뜸상'에 김선영 학생



범어사에서 열린 축제한마당은 글짓기, 그림, 놀이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월간 <불광(발행인 지홍)>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대불어)가 주최한 전국 어린이 부처님그림그리기와 연꽃문화제가 5월 5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렸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부처님그림그리기대회에서 우뚝 으뜸상(문화관광부 장관상)에는 청룡초등학교 김선영 학생의 판화가 선정됐으며 으뜸상에는 그림부분 김소영(자산초6) 학생의 6명, 글짓기 부분 김성완(용산초6)의 6명이 각각 수

상했다. 수상작은 서울 롯데월드민속박물관 내에서 5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불교방송과 동화사도 5월 5일 동화사와 팔공산 일대에서 제1회 문예마당을 열었다. 유치원·초등학생·중학생이 참여하는 글짓기 그림그리기 디카촬영대회인 '2005 꿈이 있는 문예마당'은 1부 꿈마당 개막식, 2부 글짓기 그리기 디카촬영대회, 3부 어린이날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천미희·배지선 기자

## 불교수행공동체 '백장선원' 창립



원구 스님(백장선원 지도법사), 김성규(영남대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장호경 교수(대구한의대 한방의용공학과)가 5월 1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21세기 새로운 불교수행공동체 백장선원을 창립했다(사진). 바른불교,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새 수행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하

는 백장선원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에 등록, 두 달에 한번 이벤트 법회 등을 개최해 새로운 불교문화와 법회를 선도한다는 포부다. 4월 6일 개설된 온라인 백장선원에는 지도 법사 원구 스님의 수행일기를 비롯해, 김성규 교수의 불교나라, 김성삼 교수(대구한의대 미술학과)의 미술기행 떠나기, 사찰풍수 이야기, 마음을 여는 책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또, 종합내과, 한방, 교육, 부동산, 세무 상담실과 어린이방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 cafe.daum.net/baekjangsw, (053) 744-0103 배지선 기자

## 봉축 부처님 오신날

### 21세기는 불교가 희망입니다

자연을 살립니다. 인간을 살립니다. 동쪽세상에서 서쪽세상까지 불교가 희망입니다. 21세기의 희망을 여는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김현해 동국대학교 총장 홍기삼



www.dongguk.edu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2차 공청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발전위원회는 동국대학교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될 불교대학의 학과관계와 교과과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주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에 대한 재검토

- 일시: 2005년 5월 20일(금) 오후 1시
- 장소: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 발제 및 논평
  - 사회: 조용길 교수(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 1. 제1주제: 불교대학의 학제와 불교학과 현행 교과과목에 대한 재검토
  - 발제: 김중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논평: 우제선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2. 제2주제: 불교대학의 학제와 인도철학과 현행 교과과목에 대한 재검토
  - 발제: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 논평: 황순일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 3. 제3주제: 불교대학의 학제와 선학과 현행 교과과목에 대한 재검토
  - 발제: 종호 스님(동국대 선학과) - 논평: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 종합토론
  - 사회: 최병헌 교수(서울대 국사학과)
  - 총평: 이평래 교수(충남대 철학과, 한국불교학회 회장)
  - 지정토론: 불교학계 및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발전위원회

문의: (02)2260-3768